

작년 경찰 총격 사망자 7년래 최다”

작년 한 해 미국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의 수가 7년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연합뉴스'가 워싱턴포스트(WP)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경찰의 총격에 의한 사망자는 2019년 999명, 2020년 1천21명이었다. 작년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자는 최소 1천55명으로 최근 7년래 최다를 기록했다. WP는 2015년부터 경찰의 총격에 의한 사망자 수를 집계해 오고 있다.

WP는 미국 전역에서 강력사건이 빈발했던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공공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배경으로 꼽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자 수가 7년래 최다라고 해도 예상 범위를 벗어나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아니라고 진단했다. 지난 7년간 미국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의 수가 적게는 연간 958명(2016년)에서 많게는 연간 1천55명(2021년)으로 통상 1천 명 안팎을 유지해 왔다는 이유 때문이다.

범죄학자이자 과학자인 앤드루 휠러

는 이러한 숫자는 경찰 총격 사망자 수가 일선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 방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면서

"경찰이 관여한 총격 사망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기간에 경찰력 행사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랭클린 짐링 캘리포니아대학 범죄학 교수도 2020년과 2021년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연도별 증가 폭이 3%에 불과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2020년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현장 대응 방식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실제, 작년 각 주에선 경찰의 무력행사와 관련한 법안이 400여 개나 상정됐다.

이에 더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목적으로 경찰이 정신 건강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경찰 무력 사용 감시 기구도 설치됐지만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중산층 내 집 마련 꿈 멀어져”

지난 2년간 집값 상승과 주택 매물 감소로 미국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연구자료를 인용해 작년 말 현재 연소득이 7만5천~10만 달러인 미국인 가구가 감당 가능한 가격에 살 만한 주택 매물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보다 약 41만1천 채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는 2019년 말엔 이 소득계층이 적당한 가격에 살 만한 주택 매물이 24가구당 1채는 있었는데, 작년 말에는 65가구당 1채로 줄어들었다 것으로, 그만큼 집값이 올라 이 소득계층의 가구가 살 만한 집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NAR는 만기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금과 보험료를 포함한 주거 비용에 소득의 30% 이상을 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가구 소득계층별로 적당한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 최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한 전 소득계층에서 적정 가격의 주택구매 가능성이 악화됐다.

주택 매물 수가 줄어든 점이 전 소득계층에 걸쳐 주택 구매를 더 어렵게 했다. 작년 말 현재 매물로 나와 있거나 계약 중인 전

체 주택 수는 91만채로, NAR이 1999년 기준주택 재고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적었다.

팬데믹 기간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한 데다가 안 그래도 비정상적으로 적었던 주택 공급은 더 쪼그라들었다. 주택 신축도 감소하고 잠재적인 주택 매도 인들이 이사를 연기하거나 매각을 꺼렸다.

주택 매물 중 연 소득 7만5천~10만 달러인 가구가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주택의 비중은 2019년 말 58%에서 작년 말 51%로 7%포인트나 감소했다. 이는 연 소득 10만~12만5천 달러인 가구의 해당 주택 비중이 같은 기간 71%에서 63%로 8%포인트 줄어든 다음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이었다.

지역별로는 연 소득 7만~10만 달러 가구가 적정 가격에 살 만한 주택이 가장 부족한 상위 6개 대도시 가운데 5개 도시가 캘리포니아주에 있었다. 이는 팬데믹 기간 캘리포니아주 해안 도시에서 내륙 지방으로 이주가 많았던 요인이 됐다고 WSJ은 설명했다.

퓨리서치센터는 작년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201 가구 기준 연 소득이 4만3천 399~13만198달러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보고 있다.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띠별 운세

2월 14일 ~ 2월 20일, 2022년

청해 역학 학술원(清海 易學 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남자 길일 : 16, 17, 20

여자 길일 : 14, 15, 18, 19



바른 길을 간다면 앞이 막히지 않고 정정당당할 것입니다. 하늘의 도를 본받아 절도있는 생활을 하며,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착실하게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겸손함을 지녀야 합니다.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듯이, 맨손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금전○애정△ 건강○



정성스러운 마음과 건실성을 가진다면, 혹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구설수가 두렵습니다. 넓은 덕을 베풀고, 성실하고 균면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때를 맞추어 모든 일을 추진한다면 나이가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애정○ 건강○



적극적으로 일을 확장하기보다는 먼저 내부 관리에 충실히 해야 합니다. 문서계약 관계는 분명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합니다. 교섭에 임할 때는 먼저 상대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금전△ 애정○ 건강○



김정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면 손해가 따를 것입니다. 성급하게 일을 벌이지 말고 여유 있게 준비하면서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운 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첫출발이 좋아야 하지만, 또한 자신의 입장을 돌이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금전△ 애정○ 건강○



땅 위에 바람이 불어오면 주위를 관찰하고 자신을 돌아켜봐야 하듯이, 세상의 흐름과 주변 사람들의 동태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학문, 예술, 종교, 문화 등 정신적인 분야에 몰두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용성, 융통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전△ 애정○ 건강○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순리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안정된 태도를 취해야 좋습니다. 절제가 지나치면 발전하지 못하고 절제가 없으면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법. 중도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순리대로 일을 처리해야 복록이 뒤따를 것입니다.
금전○애정△ 건강○



좋은 때를 만났으니 스스로의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지위가 올라가고 새로운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지도자가 확고하게 계획을 세우면 아랫사람은 불안 없이 그를 따라 행동하게 되듯이, 뜻하는 일을 미리 준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면 앞길은 탄탄대로입니다.
금전○애정○ 건강△



허망한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권태로움을 수반하므로 변화를 모색하게 되고 욕구불만이 생기기도 쉽지만, 김정에 치우치지 않는 확고한 주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골고 바르게 가져야 이롭습니다. 육친을 공경하고 넓은 덕을 쌓아야 합니다.
금전○애정○ 건강△



희망을 가지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초조해 하지 말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야 크게 성공합니다. 적당한 기회를 노리면서 덕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골고 바르게 가지면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금전○애정○ 건강○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하고 마음에 확실히 정한 바가 없으면 좋은 때를 놓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운세이므로 뜻밖에 황재하여 재물이 생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기를 당하여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애정○ 건강△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확장은 훌륭한 협력자나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 추진해야 합니다. 거래나 교섭은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하며, 나쁜 유혹이나 감언이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바람이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처럼, 상업이나 유통업에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금전○애정△ 건강△



주변 사람과의 조화를 우선하여 겸손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윗사람이나 동료를 가까이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면 뜻과 같이 형통하겠으니, 스스로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한편,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람과 같이 마음이 불안정해 질 수 있으니 소인배의 감언이설에 주의하고 안으로는 굳은 마음을 지녀야겠습니다.
금전○애정△ 건강○